

새로운 책

▲인터넷 시대, 종교는 사라지는가 (도사마사키 지음, 송해숙 옮김, 한국학술정보)= 인터넷에는 수많은 종교관련 사이트들이 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종교뿐 아니라 이단시되는 신종교들도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책은 인터넷과 종교의 관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종교적 논제를 중심으로 조명한다. 그리고 사이버종교, 신종교는 장애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값 1만원.

▲산중산책(법광 지음, 우리)= 참선과 함께 수행의 한 방편으로 글쓰기를 하고 있는 법광 스님의 수필집. 추사 김정희의 글씨에서부터 성문제까지, 캄보디아에서 캐나다·미국·프랑스까지 주제의 장소 시간을 초월한다. 그리고 스님의 수행처인 수덕사 운수암과 수행의 단상들을 적은 시(詩)는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재미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 다가오는 책이다. 값 8천원.



과연 그는 살아있는 부처인가



도 벗을 수 있다. 글쓴이가 달라이 라마를 따라 티베트의 수도인 라사로 이주한 후의 생활, 그리고 티베트 정계의 내분과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를 침공해 오기 시작해서 정권을 빼앗을 때까지의 과정 등을 상세히 적고 있기 때문이다. 눈 밝은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티베트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인도

라공의 어린 시절부터 티베트 민족의 고유한 문화풍습까지 여러 측면에서 달라이 라마를 조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달라이 라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인격과 사상, 그리고 자유와 평화에 대한 의지가 어떠한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값 9천5백원.

〈달라이 라마와의 대화〉(이강혁 옮김)는 티베트 불교의 내면과 서구 문명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다. 달라이 라마는 2년 마다 세계의 석학들과 함께 종교·철학·과



◀티베트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카메라에 담고 달라이 라마의 육성을 결들인 〈달라이 라마 나의 티베트〉(이종인 옮김)를 내놓았다. 이 책은 '암도·북동쪽 국경지대', '유목민·고원에서의 전통적인 생활' 등 5부로 나누어 있으며 달라이 라마의 에세이 6편도 결들여 있다. 값 9천8백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opia.com)

나의 아들 달라이 라마 어머니가 본 인간적 모습 생생
달라이 라마 이야기 누이가 적은 환생~망명 일대기
달라이 라마와의 대화 '인간의식' 과학·불교입장 비교

로 망명하기까지 티베트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과 지금도 중국치하에서 숨막히는 삶을 살고 있는 티베트인들의 고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값 8천9백원.

또 달라이 라마 누이동생 쯤텐 퍼마가 쓴 〈달라이 라마 이야기〉(김은정 옮김)는 글쓴이가 태어날 때부터 현재까지 듣고 본 달라이 라마 주변의 일들을 적고 있다. 이 책에는 달라이 라마의 환생부터 시작하여 현재 망명정부 티베트까지, 그리고 달라이 라마 주변의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정치적 상황까지, 포탈

학·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데, 이 책은 지난 92년 인도 다람살라에서 5일 동안 '인간의식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던 내용이다. 뇌와 수면과의 관계, 꿈과 무의식, 자각몽(自覺夢), 임사체험(臨死體驗)을 포함한 죽음의 문제 등을 현대 과학과 티베트 불교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공통의 기반을 모색하려는 대화 내용이 담겨있다. 값 9천원.

시공사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작가 게일린 로웨이 티베트의 자연과 문화를

티베트 불교가 전하는 인간완성의 길



미라레빠의 십만송 이정섭 옮김

1052년 티베트의 감자 마을에서 한 사내아가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친척들에게 사기까지 당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 결국 그는 원수를 갚기 위해 그 친척들을 모두 죽인다. 하지만 그는 그 충격으로 방향을 하다 마르바라는 스승을 만나 수행자의 길을 걷는다. 20여 년 만에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동굴생활을 계속하며 틈틈이 마을로 내려와 보시자들에게 노래로 가르침을 전한다. 열반에 들 때까지 그는 수많은 중생을 웃기고 울리며 교화했다. 그가 바로 미라레빠(1052~1135)이다. 최근 시공사에서 삼발라 총서 일곱 번째 권으

로 나온 미라레빠의 십만송 1·2·3(이정섭 옮김)은 미라레빠가 성취한 깨달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책이다. 티베트불교의 정수를 담은 경전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우리는 이 책에서 인생사의 온갖 모습을 볼 수 있다. 여러 도덕적인 교훈과 정신적인 가르침을 볼 수 있고, 우리의 관념을 초월하는 시간, 즉 기적의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완성을 추구해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길잡이들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권하고 싶다. 한 번 읽고 버릴 책이 아니라 두고두고 되새기며 읽을 만한 책이기 때문이다. 각권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삶의 중심찾는 만다라 수행



만다라이야기 도열스님 지음

티베트 불교미술의 결정체인 만다라. 평소 만다라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던 불자라면 도열 스님이 펴낸 〈만다라 이야기〉(맑은소리)를 읽어보길 권한다.

10년 동안 만다라 그리기를 수행의 호두로 삼아온 스님이 만다라의 모든 것을 그림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스님은 십 수년전 호암미술관에서 열린 '만다라 대전'을 접한 후, 그

우주적 메시지를 그림으로 표현하기에 매달려 여섯 번의 유희 만다라 개인전과 최근 컴퓨터그래픽을 통한 디지털 만다라 전을 갖기도 했다. 이 책에는 그런 스님이 만다라를 그리며 밀교이론을 새롭게 공부하고, 인도여행에서 느끼고 체험했던 내면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제1장 '만다라'는 스님이 직접 그린 디지털화를 결들여 만다라의 원리와 여러 상징들의 뜻, 만다라 명상법과 작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제2장 '순례'에는 만다라의 원형과 석가모니 부처의 자취를 찾아 떠난 인도순례기를 사진자료와 함께 담았다. 값 1만3천5백원. 이은지 기자(ejee@buddhopia.com)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2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은정희	일지사
3	단박에 운회를 끊는 가르침	김지수	불광
4	치문경론	현진	시공사
5	영가전도	우룡	효림
6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각	열린문
7	이름 아침에 나를 기억하라	틱날	지혜의나무
8	마음 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화	법공양
9	전통사찰음식	적문	우리
10	빠빠지 면담록	해베드기연	탐구사

도서 안내: (02)737-0695

禪 철학인가... 변상섭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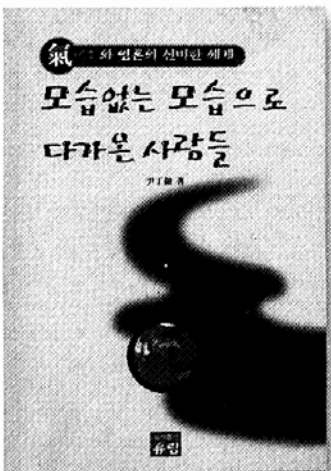
선(禪)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내적 자유를 얻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수행법을 고집한다면 현실도피자나 신비주의에 빠지기 십상이다. 선 수행 과정에서 우연히 체험하는 신비로운 심적 상태를 궁극적인 깨달음이나 높은 수준의 정신상태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불교 철학자 변상섭 씨는 〈선 철학인가, 신비주의인가〉(철처라인)를 통해 선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교학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이 대중화의 바람을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을 신비주의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즉 교학이 선의 정신이론이란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불교역사 속에서 찾는다. 선가에서 '교학을 버리고 선을 수행할 것(捨教入禪)'을 주장함으로써 교학에 대한 연구가 소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교입선은 경전만을 보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꿰고 해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교학은 잘못됐고 선만이 옳다는 주장으로 곡해했다는 것이다. 선의 본질에 대한 오해와 수행방법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란 주장이다. 글쓴이는 경전이나 논서들이 깨달음의 정신이론이라는 것을 하나씩 입증해 나간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氣(마음)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 본인들의 의식수준에 한해 개별적인 영기전도 능력 전수기 가능함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신비한 기(氣)와 마음의 묘법을 밝힌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윤정주 지음 도서출판 유림 퍼블)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몸의 아픔과 우환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혼의 기(氣: 에너지)체가 시공을 초월해 사람의 몸과 정신세계에 파장을 주기 때문에 비롯된다는 체험 이야기를 세계 역사상 최초로 그 이론을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세히 밝혀 놓았다.

저자는 독특한 초능력을 소유하고 나서도 저자의 능력에 관한 이론과 실체를 정확하게 세상에 밝히기 위해 오랫동안 중국을 왕래하며 원극학(元極學)의 이론과 실체를 배웠으며 또한 원극학의 진인(真人)이신 장지상(張志祥) 교수와 장 교수와 모친으로부터도 한국학으로선 유일하게 그 실력을 인정받은 걸로 알려져 있다. 저자는 아무 곳에서나 어떠한 의식을 행하지 않고 그냥 1~2초에 영가들을 천도하며 동시에 상대의 아픔을 원격(遠隔)으로 해결하는 수행(修行)에서 얻어진 초능력을 본인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다.

현재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또는 심한 정신적(정신질환)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 원인과 이유를 설명해 주고 심신의 안정을 바르게 하며 살 수 있는 맑고 편안하고 깨끗한 자신의 기(氣: 마음에너지)를 상대에게 주입시키면서 일상 생활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수련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도 우주공간에 떠돌고 있는 보이지 않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천도(薦度: 미혹한 무지에서 만들어낸 업(業)과 한(恨)의 의식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영계로 보냄)도 중요했지만 또 앞으로 그렇게 떠돌게 될 예비영혼들(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자세)의 구제가 더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글 솜씨를 마다하지 않고 이 책을 세상에 내놓았으며 또한 나름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빠르게 주어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보다 차원 높은 사회를 위해서 진여 기(마음) 수련원을 열었습니다.

- 책의 본문에서 -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초월된 정신세계에 관한 아름다운 체험 이야기로 그에 뒤따른 아름다운 마음의 묘법을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다는 이치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밝혀놓은 도깨비방망이 같은 요소가 나오는 책입니다.

전국 유명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

도서출판 유림 전화: 02-736-7148, 723-3856

- 매일신문, 영남일보 논평기사 중에서 -

진여氣 수련원 원장 윤정주 지음